

이광수와의 서면 인터뷰

1. 작품을 주로 집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쩌다 보니 집을 찍게 되었다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린벨트나 재개발 지역 같은 장소가 어처구니없고 놀라워서 찍었고, 다음에는 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집들을 작품화 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 비슷한 게 있었지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과 부동산 투기 따위가 보여주는 교환가치로서의 집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며 이게 뭔가 싶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 투기 대상이 되거나 또는 투기 대상에서 소외된 장소와 집들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작품화 시켰다고 할 수 있네요.

달리 말하면 기형적 압축 성장을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아파트와 사대강 같은 장소이고, 부산의 산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심 밖에 있는 장소이죠. 즉 투자의 대상이 되어 이미 사라졌거나 혹은 그 대상에서 소외된 집이 내 눈을 끈 것입니다. 그런 집들은 개인의 소유물임을 넘어 일종의 역사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그와 같은 집과 공간이야말로 개인사와 일반사가 만나서 응결된 장소이니까요. 물론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흔적이 없죠. 도시 어느 곳이나 범죄 현장이라는 벤야민의 말을 비틀면 산동네 어느 곳이나 역사의 현장인 거죠.

1-1. 이번에 작업을 하는 '집'과 이전의 작업한 '집'의 사진적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현 방식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재현 방식의 차이라면 색칠을 했는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나 보네요. 우선 차이가 있다면 전번의 <그 집> 시리즈는 처음부터 기획된 작업이라기보다는 여러 해 동안 찍은 재개발 지역 사진들 가운데 인상적인 집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한 채의 집도 남아 있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기억의 재현에 가까웠습시다. 색칠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지요. 물론 색칠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요.

이에 비해 부산 작업은 처음부터 색칠할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그냥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가겠다였습시다. 전의 <오쇠리 풍경>이나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과 유사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간단하게 붙여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시다. 그 뒤의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그리고 전시 제목을 <사람의 집>으로 한 것은 <새집>이나, <개미 집>처럼 동물의 일종인 사람이 지은 집의 절실함과, 구조와 다양성을 주목하라는 의도입니다. 제가 본 부산의 집들은 가장 근본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집들입니다. 그 집들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순전히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짓고, 고치고, 늘이고 살아온 집의 역사가 고스란히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부산 산동네들이지요. 때문에 이런 집들을 사진으로 담는데 있어 최소한의 간섭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배제하려 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겠지요.

1-2. 미술을 하다가 사진으로 전공 영역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영역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왔다가 옳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진을 매체로 선택했을 때도 미술의 일부라는 생각을 했지요. 92년에 컴퓨터를 처음 사면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사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기의 작업도 제가 찍은 사진들이 아니라, 잡지에 실린 사진들을 스캔하고 합성해서 개인적 해석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싸구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스캐너로 읽어서 재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디지털 카메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스스로는 사진가라기 보다는 사진을 표현 매체로 쓰고 있는 미술가라는게 옳을 지도 모릅니다. 뭐 어쨌든 상관 없겠지만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사진이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 있으며 돈이 많이 드는 매체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1-3. 사진계 밖에서 보던 사진계와 사진계 안에서 보는 사진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진계 밖에서는 사진계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는게 없었지요. 안에서 보는 사진계는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삶과 작업 조건이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사진계에도 진지한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걸뭇 부리는 작가들도 있는데 그게 통하기도 하는 걸 보면 다른 시각 예술계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진을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류도, 일종의 이너 서클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니 친한 몇몇 사진가 외에는 정말로 아는 바가 없네요.

2. 미술을 전공한 것이 자신의 사진 작업에 방해 요소가 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지는 모르겠지만 방해가 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 작업을 한다는 의식 없이 이미지를 만든다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술을 전공한 것은 사진을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어서 사진에 유연하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기도 하네요. 사진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겠지만 별 상관은 없을 듯 하네요.

2-1. 50대 작가로서 그 동안 선생님 개인의 사진사를 돌이켜 본다면, 어떤 분기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과거 사진과 요즘 사진의 차이가 있다면 뭘지?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50대 작가라고 해봐야 작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경력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가 이미 35세 였고, 그 뒤로도 한참 헤맸기 때문에 잘 해야 한 이십년 정도이네요. 또 개인적 사진사라기 보다는 작업사 정도가 적당할 듯하네요. 변화라면 몇 번 있기는 했네요. 처음에는 다른 매체에 실린 사진을 스캐너로 읽어 들여서 컴퓨터로 합성한 작업, 다음에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의 사진에 채색을 한 작업들이 일종의 분기점이 되겠네요.

아마 처음에는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별 생각 없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는 입장이었다면, 다음에는 사진 매체가 가진 특성들과 친해지는 과정, 마지막은 사진도 회화도 아닌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우리가 대상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서 출발한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대상을 보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이미지는 사실 어떤 매체로도 정확히 재현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막연한 근사치를 만들 뿐이죠. 그래서 사진도 회화도 아닌 어떤 이미지가 가능하지나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게 최근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회화, 혹은 손으로 뭔가를 칠하고 만들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었구요.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기계적이고 객관적인 이미지라는 사진과, 주관적이고 수공적인 색칠하기를 결합하면 개인적인 기억 혹은 상상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였지요. 대체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내용 비슷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구요.

2-2. 50대의 중견작가가 된 지금의 시점에서, 그 동안 작가 강홍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진작가 혹은 예술인이 있으신지요? 그 영향은 어떤 점에서 받으셨는지?

자꾸 50대 50대 하시는데, 50대도 인간이고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하하. 특별히 영향을 받은 예술가라기 보다는 좋아한다는 편이 옳을 텐데 렘브란트, 세잔, 석도, 팔대산인.. 정도인가요. 사실은 한 예술가나 특별히 영향 받은 사진가라기 보다는 어떤 작가의 좋은 작품을 선호한다는 편이 옳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작가든지 전성기, 혹은 정말 좋은 작업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작업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모네의 지베르니 시절, 세잔의 후기 작업, 렘브란트의 자화상들과 기타 걸작들, 까라바지오의 몇 작품들, 잔더의 초상 사진, 아제의 파리 사진.... 등등. 그리고 어떤 예술가를 특별히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을 존경하느니 닭이나 돌맹이를 존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름도 없는 작가들이 만든 옛날 작업들이 좋아집니다. 동굴벽화, 이집트의 조각과 초상, 무명작가의 사진과 건축들 따위 말이죠. 사실 부산의 산동네가 흥미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서 집들이 무명작가의 작품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과 작업들에는 자신이 예술을 한다는 따위의 자의식이 없죠. 마치 일의 일종인 것처럼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그 작품에 대한 신뢰와 소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요. 즉 예술의 원형인 거죠. 돈이 되지 않으면 예술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근원적 아름다움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마도 제가 하고 싶은 작업도 그 범주에 들어갔으면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3. '사진은 인문학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으시는지? 동의한다면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인문학 공부를 하시는지요?

사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 질문은 인문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한 질문이구나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사진은 사진일 뿐입니다. 물론 사진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은 중요합니다. 존 택(Jhon Tagg)이라는 사진가 말을 빌리면 '사진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사진을 역사나 사회, 문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위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진가나 미술가의 입장에서든 자신이 생산한 이미지가 어떤 좌표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작업의 진행 방향을 탐색하는데 인문학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만들고 이미지화 하는 기술과 감각에서는 인문학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 경우에는 특별히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의식은 없습니다. 구지 공부라면 책 읽기 일 테

고 그것은 특별한 방향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기와 장자에서 출발해서 마르크스,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레비스트로스,《열하일기》를 거쳐 마르케스와 데실 해미트, 당나라의 요절 시인인 이하, 백석과 이상을 지나 다시 역시 옛날 책으로 간다고나 할까요. 한마디로 잡다합니다. 최근에는 부산 작업 때문에 르페브르, 이푸 투안, 한국 주거사, 사당동 +25 등등과 부산발전 연구소를 비롯한 부산 연구자들이 펴낸 여러 책과 논문을 읽었네요. 물론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 덧붙이자면 인문학 유행은 나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인문학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인문학으로 본 경영술 따위처럼 처세술, 경영 방편, 세속적 성공을 위한 새로운 키워드 찾는 수단 따위로 변질 되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문학 뿐 아니라 모든 기초적 순수학문이 위기이고, 예술 또한 마찬가지이죠. 요는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나 예술 따위는 문화, 혹은 학문 산업에서 열세종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인문학에 대한 유행이 시작 된 것이나 아닌지 싶어요. 또한 저널리즘이 인문학을 다루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지나치게 심각하고 심오하게 이상화 하거나, 아니면 만병통치약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4. 사진을 가르치거나 평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진을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어떤 사진을 낮게 평가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바르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술 사진이 아닌 사진이 진짜 사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잘 찍은, 멋지게 만들어진 사진보다는 역시 뭔가 덜 예술적이면서 대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진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학 사진이라면 잔더 이후의 모든 사진들은 너무 세련됐거나 개념적이어서 잔더에 못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예술 사진이 아닌 사진들이 훨씬 흥미 있습니다. 특히나 무심하게 찍은 가족들의 기념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들은 작가들이 찍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역시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예술적인 척 하거나 별 개념이나 생각이 없는데 과대 포장하는 사진들이지요. 그러니까 꾸며낸 사진들이 싫습니다.

4-1. 전문 사진작가가 되고자 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하하. 아마추어도 여러 레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하고 지식을 갖췄다면 보는 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때 앞에서 말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문학이란 결국 세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양과 지식이고 이게 있어야 자신의 사진의 위상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즉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기에 대한 좌표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러지 못하면 기술적 레벨에서 멈추고 맙니다. 또 사진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각 예술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은 세계를 이미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정말로 세상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절실한 것이 없다면 작업들은 늘 범상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할 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은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답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창조적인 사진이나 작품이란 늘 사진 자체에 관해, 예술에 관해, 학문에 대해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정의 하려했지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네요. 아, 작가가 되려면 항상 작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5. 사진을 셀렉팅 할 때 자신만이 갖는 어떤 노하우나 감(感)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남들하고 똑 같지요. 사진은 시각적인 거니까 우선 눈을 끄는 게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처음 보는 순간 결정되는 것 같네요.

6. 사진과 관련하여 요즘 가장 큰 관심 내지는 고민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하나에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고향인 신안군 섬과 바다를 찍을까 싶습니다. 그곳을 찍어야 한다는 의무감, 흥미, 관심이 생긴 지 몇 년 됩니다. 시험 삼아 몇 번 찍기도 했는데 더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면적도 넓고, 거리도 먼데다 섬이라서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제작비 조달과 전시 비용 따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 데 그것도 두고 봐야죠.

7. 갤러리에 초청 받으신 적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도움 안 되는 가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금 서울의 한 갤러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삼 년 됐나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가장'이 아니라 온갖 일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노부모 봉양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물론 백수에 비정규직이어서 수입이 일정치 않지만 지금 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십년 뒤에 뭘 먹고 살지 인 데 뭐 어떻게 되겠죠.

8. 부산, 하면 사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맨 먼저 떠오르나요?

전에는 최민식 선생, 자갈치 시장, 그리고 해운대 정도. 물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찍을 게 너무너무 많은 곳. 고은 사진 미술관의 여러 기획전에서 본 옛 부산 사진가들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아하, 사진을 더 많이 더 오래 찍었어야 하는데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8-1. 부산에서 1년 동안 작업을 해오셨는데, 사진의 소재로서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갖는 특별함 같은 게 있을까요? 일상성이 아닌 특수성의 의미랄까요?

일상적인게 특수한 거고 특수함이 일상적이겠죠. 부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

하기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하자면 찍을게 많다는 거죠. 거대한 항구 도시가 가지는 특수성에다, 부산 특유의 색채 감각, 해운대를 비롯한 지역과 구시가지 산복도로 사이의 시간, 공간, 자본의 격차 등이 우선 떠오릅니다. 또 일제 이후의 역사가 누적된 도시로서 일종의 도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들과 욕망들이 흥미 있습니다. 즉 분열증적 징후가 도시 전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 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겠죠.

8-2. 지난 1년 동안 부산을 소재로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비교적 작업하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동네 마다 사진 찍히는 일에 익숙해서인지 사람들이 관대했습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을 찍을 때 부딪히던 시선, 항의, 시비에 비하면 미안할 정도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 있다면 물만골을 찍을 때 웬 어르신이 '어이 사진사, 이리 좀 와봐요'라고 부르시더군요. 사진사라는 말도 오랜만에 듣고, 웬일인가 가봤더니 자신의 집 지붕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 개량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증빙 자료로 쓸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덩달아 옆집도 찍어 달래서 찍고, 인화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지요. 다음에 들렀더니 지붕이 바뀌었더군요. 진짜로 실용적인 사진을 찍은 드문 경우인데, 이게 사진의 본래 용도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8-3. 부산의 고은사진미술관이 주최하는 부산 바깥에 사는 50대 사진작가들이 부산을 '참견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50대 작가 5—6명이 각기 다른 소재와 주제로 부산을 찍어 해마다 전시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 있는 프로젝트이지요. 고은 사진 미술관의 야심작이네요. 정말 다른 지역에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웬만한 전시 공간이 있는 지자체라면 예산을 좀 들여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부산 참견 프로젝트의 의미는 실용적 목적 없는 작가로서의 입장에서 한 지역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진 다양성, 중층성과 깊이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날 테고 그것들이 모였을 때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예상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훌륭한 프로젝트라는 데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진의 해석과정에서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해서 그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참견을 넘어선 부산의 재발견, 재해석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부산 참견이 성공해서 다른 지자체들에 널리 퍼져 기록도 남기도, 사진가들의 작업과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 절반 조금 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꼭 사진과 관련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싶네요. 진짜로. 다음에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 대단치는 않지만 할 만큼 했군, 그런 기분이 되기를. 또 일찍 늙어버리지 않기를 바

랍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끈대가 되지 않았으면 싫어요.